

刺鍼의 基本手技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嚴 泰 植* 朴 喜 守**

I. 緒 論	IV. 總括 및 考察
II. 研 究 方 法	V. 結 論
III. 本 論	VI. 參 考 文 獻

I. 緒 論

古書에 補瀉手法을 口訣 이라고³³⁾ 하였으며 口訣을 深奧한 文辭로 自解하기 難易하여 師傳心授의 口傳秘訣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補瀉에 對하여 瀉必用方 以氣方盛也以息方吸而 內針으로 補必用員 員者行也 行者移也³¹⁾ 라 함은 施針後 補瀉技法으로 補瀉가 되는 것이다.

補瀉의 基本인 刺針의 技法을 宋代에 李³³⁾³⁴⁾³⁸⁾ 등에 의하여 子午流注를 整理할뿐 技法은 提示가 되지 않았으며 明代에 楊³⁴⁾이 針灸玄機秘要를 中心하여 口訣대로 介되고 있음으로 田³⁵⁾ 이 楊³⁵⁾의 內容을 引用하면서 崔²⁸⁾¹⁶⁾²¹⁾ 등이 傳載하게 되었다.

刺針의 技法을 難易度에 따라 引用이 다르고 雀啄術·單刺術·置鍼術등은 많이¹²⁾³⁾⁴⁾⁵⁾⁶⁾⁷⁾ 管散術¹⁶⁾¹⁴⁾²³⁾ 示指打術²⁸⁾ 등은 거의 引用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을 보아 技法의 整理가 必要하다.

本 著者는 人體는 恒常性을 維持못한 經絡의 不調和를 病理로 하여 經絡을 調節하는 理由는 十二經脈者 內屬於腑臟 外絡於肢節³⁶⁾ 로 經絡의 治療作用을 補瀉하는 原理이므로 刺針

後에 補瀉의 技法을 認定하는 次元에서 刺針의 手技에 對한 整理는 意義가 크다고 보여짐으로 資料自體는 頻弱하나 그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 究 方 法

1) 資料調査

國內에서 發刊된 鍼灸에 關係된 文獻 17種과 國外에서 發刊된 鍼灸關係 文獻 8種 등 刺鍼의 基本手技法이 수록된 25種의 文獻을 資料로 하였다.

國外文獻

著 者	書 名
1. 國分壯	最新鍼灸醫學 ¹⁾
2. 承擔會	中國鍼灸學 ¹³⁾
3. 長濱善夫(外)	鍼灸治療의 新研究 ²⁶⁾
4.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⁸⁾
5.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⁹⁾
6. 大渡	漢方鍼灸家庭療法 ⁴⁾
7. 木下晴都	鍼灸學原論 ⁶⁾
8. 芹澤勝助	鍼灸診斷 治療의 科學化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院

國內文獻

著者	書名
1. 崔容泰	鍼灸學 ¹⁾
2. 林鍾國	鍼灸治療學 ²⁾
3. 金泰英	鍼灸學 ³⁾
4. 白允基	鍼術入門 ⁷⁾
5. 李秀鎬	精解鍼灸學 ¹⁷⁾
6. 李文宰	鍼醫學 ¹⁶⁾
7. 成樂箕	必源鍼灸全書 ¹⁰⁾
8. 金賢濟 (外)	最新鍼灸學 ²⁰⁾
9. 朴鍾甲	鍼灸入門 ⁵⁾
10. 張基洙	診斷과 鍼灸治療 ²³⁾
11. 宋榮敏	圖解最新鍼灸處方集 ¹²⁾
12. 李觀浩	東洋醫學研究 ¹⁵⁾
13. 李容圭	韓國鍼灸臨床 ¹⁸⁾
14. 丁海哲	漢藥산책鍼灸甲乙 ²⁵⁾
15. 尹昌河	萬能鍼灸診斷要訣 ¹⁴⁾
16. 丁光聲	鍼灸醫學原論 ²⁷⁾
17. 丁民聲	鍼灸學原論 ²⁴⁾

2) 方法

1. 먼저 各文獻에 分類된 刺針의 基本手技法和 適應症을 살펴 보았으며,
2. 手技法の 種類를 文獻別로 整理하였다.
3. 刺針의 基本手技法이 人體에 주어지는 刺戟量의 程度를 分類하였다.
4. 以上の 內容을 連關지어서 總括 및 考察 項에서 整理하였다.

Ⅲ. 本 論

資料 1. 各 手技法の 方法 및 適應症

1. 單刺術: 鍼尖을 一定한 目的部位에 刺入한 후 動搖 進退를 하지 않고 即時 拔針한다. 小兒 婦女子 體弱者 등에 應用
2. 雀啄術: 鍼尖을 一定한 目的部位에 到達케 한 후 針體를 새가 모이를 쪼으 듯이 上下로 움직이는 方法 急性病 疼痛性 疾患에 應用
3. 旋撚術: 針을 皮膚에 刺入할때나 刺入 한후 或은 拔針時에 右手의 拇指와 食

刺針의 基本手技法에 대한 문헌적 고찰

指로 針을 左右로 돌리는 方法

4. 屋漏術: 雀啄術의 運用法으로 一定部位에 刺針하고저 할때 3분의1 刺入後雀啄術을 行하고 暫時 쉬었다가 再次 3분의1 刺入하고 雀啄術을 行하기를 세차례 하고 拔針時에도 同一한 術法을 行하는 方法 筋肉痛과 筋肉弛緩과 興奮을 鎮靜시키고 腹痛 神經痛등에 活用한다.
5. 隨針術: 呼氣時에 針을 移動하고 吸氣時에 止하며 刺하고 拔하는 方法
6. 亂針術: 여러가지 種類의 手技方法을 併用하는 方法 痙攣性 疾患에 應用
7. 置針術: 한개 或은 수개의 鍼을 刺入하여 (留針術) 數分 或은 數十分間 그대로 置針하는 方法으로 神經痛등 慢性病에 應用
8. 間歇術: 一定한 깊이에 刺入한후 放置해 두었다가 拔上하고 또 一定한 時間 두었다가 刺入하는 方法을 反復하는 方法 消化器疾患 肩痛 腰痛등에 活用
9. 廻旋術: 刺針時 右旋만으로 刺入하면 拔針時에는 左旋만으로 拔하는 方法 便秘 感冒 등에 應用
10. 振顫術: 針尖을 一定한 部位에 刺入 한후 針頭를 흔들거나 爪로 긁어서 刺戟을 強化하는 方法 虛弱者 腹膜炎 胸膜炎 등에 活用
11. 接觸法: 皮膚표면을 刺戟하여 經絡을 興奮시키는 方法 小兒에 多用 筋痲痺 등에 活用
12. 內調術: 刺入한 針柄을 左手로 쥐고 右手로 針管을 叩打하는 方法
13. 細指術: 彈入하여 鍼이 針管頭에서 沒入하기 전에 針을 올렸다가 刺入하는 方法으로 數回 反復하는 方法
14. 氣拍術: 針을 刺入한후 그 周圍皮膚에 指頭 또는 針管으로 두드려 振動시키는 方法 下痢 不眠 冷症 등에 活用
15. 管散術: 針管으로만 行하는 手技法으로 針

- 管을 目的한 部位에 押手로 세워
管頭를 가볍게 叩打하는 方法
知覺이 過敏한 경우에 活用
16. 示指打術: 한번 刺入한 針에 再次 針管
을 쥐고 管頭를 가볍게 叩打하는
方法
17. 轉向術: 刺入한 針을 皮下까지 뽑았다가
針尖을 反對側으로 刺入하는 方法
血行障礙 腹痛 嘔吐 腹鳴 便秘 등
18. 轉移術: 針을 皮下에 얇게 刺入하여서 指
頭로 針주위를 壓迫하여 針을 輪
狀으로 移動시키는 方法
血行障礙 婦人病 등에 應用
19. 三調術: 輕刺戟의 目的으로 針을 一分정도
刺入하고 한 두 呼吸 멈추었다가
다시 一分정도 刺入하는 式으로 三
段階로 刺入하는 方法
胃下垂 胃腸炎 胞膜炎 腎炎 등에 適用
20. 三法術: 直刺한 針을 皮下까지 뽑아올려 針
尖의 方向을 앞으로 一刺 뒤로 一
刺하는 方法
冷症 皮下痛 등에 應用
21. 提插術: 針尖이 皮下에 刺入한 후 針을 皮
下 或은 筋肉內로 上下로 進退시
키는 方法으로 進入하는 것을 插
退하는 것을 提라 함
22. 刺血法: 三稜針을 使用하여 瀉血하는 方法
熱病과 急性痛 瘀血에 活用
23. 捻轉法: 刺入한 針을 右手 拇指와 食指
로 針柄을 쥐고 拇指를 前後로
交替해서 移動하는 方法
24. 回轉術: 刺入 또는 拔針時 針을 손목시계
태엽감듯이 左右로 回轉시키는 旋
撚術, 左 또는 右側 한쪽으로만 回
轉 刺入하고 拔針 할 때는 反對方
向으로 回轉시키는 廻旋術이 있다.
便秘 感冒 등에 應用한다.
25. 圓針術: 廻旋術과 같은 方法의 手技法
26. 散刺術: 針을 目的한 깊이까지 刺入 하고
서는 拔하고 刺入하고서는 拔하는
方法
硬結이나 脹하는 部位에 行한다.
27. 四傍天術: 間歇術의 一種으로 刺入한 針을

拔上하여 비스듬이 上方으로 左右
二回씩 針柄을 回轉하는 方法

28. 四傍人術: 間歇術의 一種으로 刺入한 針을
拔上하여 橫으로 四回 刺하는 方
法
29. 四傍地術: 間歇術의 一種으로 刺入한 針을
拔上하여 斜向 下方으로 四回 刺
하는 法
30. 熱行術: 振顫術의 一種으로 刺入한 針을
留針시킨 후 拇指 또는 示指로
針柄을 叩打하는 方法
31. 溫針術: 振顫術의 一種으로 刺針한 주위
의 前後 左右를 壓迫하는 方法
32. 歇啄術: 屋漏術을 雀啄術과 併行하여 手
技하는 方法

資 料 2 : 手技法의 刺戟程度를 強弱의 分類
手技法의 刺戟量을 治療目的에 따
라 適切한 手技法을 行함으로써 刺
戟量을 調節한다.

1. 弱刺戟: 組織細胞의 機能을 促進시킨다.
(輕刺戟) 體質이 弱하고 忍耐力이 적고 針
感에 過敏한 者에게 應用한다.
2. 強刺戟: 進行性 疾患의 汚物性을 減縮시킨
다. 一般의인 體格인 사람에게 使
用하며 針感이 遲鈍한 痲痺 또는
疼痛性 患者에 應用한다.
3. 最強刺戟: 活動性을 痲痺狀態에 넣는다.

資 料 3 : 手技法의 刺戟量의 分類

1. 弱刺戟: 單刺術 隨針術 置針術 振顫術 接
觸術 細指術 管散術 示指打術 氣
拍術 三調術 熱行術 溫針術
2. 強刺戟: 雀啄術 屋漏術 亂針術 間歇術 內
調術 轉移術 三法術 回旋術 散刺
術 歇啄術 四傍天術 四傍地術
3. 強或弱刺戟術: 旋撚術 廻旋術 轉向術 提插
術 捻轉術 回轉術
4. 最強刺戟: 刺血法

資 料 4 : 基本手技法의 文獻의 出現頻度

1. 雀啄術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25

IV. 總括 및 考察

2. 單刺術 1 2 3 4 5 6 7 10 12 13 14 16 17 18 21 23 24 26 27 28
3. 置針術 1 4 5 6 7 8 10 12 13 14 15 16 17 20 21 23 24 25 26 28
4. 振顫術 1 2 3 5 6 7 10 12 13 14 15 16 17 21 23 24 25 26 28
5. 間歇術 1 4 5 6 7 10 12 13 14 15 16 17 21 23 24 25 26 28
6. 旋撚術 1 4 6 10 12 13 14 15 16 17 18 21 23 25 26 28
7. 亂針術 1 6 10 12 13 14 16 17 23 24 25 26 28
8. 屋漏術 1 6 10 12 13 14 17 23 25 26 28
9. 廻旋術 1 4 6 10 12 14 16 21 23 26
10. 氣拍術 1 6 10 12 14 16 21 23 24 26
11. 三法術 6 10 12 14 16 21 24 26
12. 內調術 1 10 12 16 21 23 24 26
13. 捻轉術 3 7 8 9 15 20 27
14. 回轉術 5 7 10 12 21 24 26
15. 四傍天術 10 12 16 21 24 26
16. 四傍人術 10 12 16 21 24 26
17. 四傍地術 10 12 16 21 24 26
18. 熱行術 10 12 16 21 24 26
19. 溫針術 10 12 16 21 24 26
20. 提插術 8 9 15 20 24
21. 隨針術 1 10 12 23 26
22. 三調術 6 10 12 14 26
23. 轉向術 1 6 14 18
24. 管散術 1 6 14 23
25. 接觸術 1 5 7
26. 細指術 1 2 23
27. 散刺術 18 23
28. 刺血法 3 7
29. 轉移術 1 6
30. 丹針術 21
31. 示指打術 1
32. 獸啄術 25

文獻上 名稱의 出現頻度

雀啄術 23	三法術 8	隨針術 5	管散術 4
單刺術 21	內調術 8	三調術 5	
置針術 20	捻轉術 7	轉向術 4	
振顫術 20	回轉術 7	接觸術 3	
間歇術 18	四傍天術 6	細指術 3	
旋撚術 16	四傍人術 6	散刺術 2	
亂針術 13	四傍地術 6	轉移術 2	
屋漏術 11	熱行術 6	刺血法 2	
廻旋術 10	溫針術 6	丹針術 1	
氣拍術 10	提插術 5	示指打術 1	

刺針의 基本手技法을 알아보기 위하여 國內外的 文獻을 살펴보고 그 內容을 要約하여 整理하고저 한다.

鍼術은 一定한 方法에 의하여 針으로 身體組織 특히 神經系統에 一定한 刺戟을 주어서 生活機能의 變調를 調整하고 抵抗力을 增進케 하여 疾病을 治療 또는 豫防하는데 意義가 있다.¹⁾

人體에 分布된 經絡은 內部로는 五臟六腑와 外部로는 皮膚 體表에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人體에 發生되는 病理的 或은 生理的 變化인 疾病을 予防 또는 治療함에 있어 鍼術의 效能을 增加시키기 위하여는 手技法을 適切히 使用하게 된다.

刺針의 基本手技法에 對하여 古代 文獻에서는 部分的으로 나타나 있으나 全般的으로 微弱하였다.

그러나 現代 文獻에서는 대체적으로 細分하여 記述하였는데 거의가 名稱만 달리 했을뿐 類似한 것이 많았다.

資料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種의 基本手技法은 그 根幹을 提插法 捻轉法 置針法 (留針法)의 變形手技法 또는 異名에 不過 했으며 大部分이 手技術의 速度와 回數 時間 刺針의 深度에 따라 名稱을 다르게 해놓는 것으로 보여진다.

文獻중에서 가장 많은 種類의 手技法으로 細分한것은 國¹⁾의 18種이었고 木下⁶⁾와 張²³⁾과 尹¹⁴⁾은 15種의 細分된 手技法을 記述하고 있다.

또한 宋¹²⁾과 成¹⁰⁾李¹⁶⁾와 林²¹⁾은 共히 6種의 基本手技法에 여러 種類의 手技法을 分類하여 細分해 놓았다.

調査文獻에서 가장 出現頻度가 많은 手技法은 雀啄術이었고 出現頻度가 많은 順序를 보면 資料 4와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雀啄術 單刺術 置針術 振顫術 間歇術 旋撚術 亂針術 屋漏術 등 8種의 手技法은 實際的으로 臨床에서 많이 活用되고 있는 基本手技法임을 認知할 수 있었다.

資料 1의 廻旋術과 廻轉術은 旋撚術과 類似

한 手技法으로 認識될 수 있었기에 旋撚術에 統一시켜야 할 것으로 思料되었다.

文獻上에서는 雀啄術이 가장 出現頻도가 높았으나 實際로 臨床에서 가장 많이 活用되고 있는 手技法은 旋撚術이라고 思料된다.

旋撚術 以外에도 類似한 手技法으로서 名稱만 다르게 記載된 手技法들이 있었기에 次後 刺針의 基本手技法의 名稱을 一元化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되었다.(資料1 參照)

資料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刺針時 基本手技法이 人體에 주어지는 刺戟 程度는 各種 手技法에 따라서 弱刺戟이나 最強刺戟등 3種類로 分類되고 輕刺戟이나 制止目的의 手技法도 弱刺戟으로 認知된다.

同一 手技法으로써 弱刺戟과 強刺戟을 줄 수 있는 手技法은 旋撚術 提插術 轉向術 廻旋術 捻轉術 回轉術 등의 6種 이었는데 이는 刺針 或은 拔針時에 手技의 速度와 回數 刺針의 深度에 따라서 強刺戟이나 弱刺戟으로 되었다.

資料2와 같이 弱刺戟은 生體의 組織細胞의 機能을 促進시켜서 生體機能을 活性化 시키는 作用 則 補하는 目的으로 使用된다고 認知되었다.

強刺戟은 進行性 疾患을 抑制 或은 減縮시킬 目的으로 使用되기 때문에 사기를 瀉하기 위한 瀉法으로 認知 되었다.

最強刺戟은 瀉血시키는 目的으로 活用되나 文獻에서는 基本手技法으로 記述한 곳이 많지 않았다.

資料3과 같이 弱刺戟은 單刺術 外 11種이었고 強刺戟은 雀啄術 外 12種이었으며 強刺戟과 弱刺戟을 併行할 수 있는 手技法은 旋撚術 外 5種이었고 最強刺戟은 刺血法 1種 뿐이었다.

最強刺戟을 주는 刺血法은 臨床에서 아주 흔하게 活用되는데 이것은 刺針의 基本手技法이라고 하는것 보다 特殊治療法으로 分類하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思料된다.

鍼法の 要訣은 陰陽을 調和시킬줄 아는데 있고 陰陽의 調和가 取해지면 血氣가 充血하고 肉體와 精神이 調和된다고 하였다.^{22 30)}

刺針함으로써 人體의 陰陽을 調和시켜 주려

면 「進針者 凡下針에 要病人 神氣息數勻이나 醫者亦如之하고 切不可大忙³⁰⁾ 이니 患者의 容態와 疾病에 따라서 適切한 手技法을 選擇하여 使用해야 한다고 思料된다.

V. 結 論

刺針의 基本手技法에 關하여 以上과 같이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刺針의 基本手技法을 大別하면 捻轉法 提插法 置針法 등 3種이 根幹을 이루었다
2. 臨床에서 活用있는 基本手技法인 單刺術, 旋撚術 雀啄術 置針術 振顫術 間歇術 屋漏術 亂針術 등의 8種이 頻用되었다.
3. 刺針時 人體에 주어지는 刺戟은 強刺戟과 弱刺戟의 手技法이 비슷한 比率이나 대체적으로 強刺戟의 手技法이 頻用되었다.

以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刺針時 陰陽調和를 위해서는 手技法의 選擇이 重要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文獻上에 나타나 있는 基本手技法의 名稱과 內容을 劃一的으로 整理해야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 되었다.

VI. 參 考 文 獻

1. 國分壯: 最新鍼灸學. 東京 齒醫藥出版 株式會社. pp.218-220.1956.
2. 芹澤勝助: 鍼灸診斷 治療 科學化 東京 齒醫學出版社. p.4.1979.
3. 金泰英: 鍼灸學 서울 杏林書院. pp.24.25. 1973.
4. 大渡 : 漢方鍼灸家庭療法. 東京 保健同人社 p.187.1976.
5. 朴鍾甲: 鍼灸入門 大邱 東洋綜合通信 教育出版社. pp.26.27.1976.
6. 木下晴都: 鍼灸學原論. 橫源賀 醫道 日本社 pp.248-251.1976.
7. 白允基: 鍼術入門 서울 高文社. pp.15.16. 1976.

8. 上海中醫學院：鍼灸學 香港 三聯書店分店。
p.283.1974.
9. 上海中醫學院：鍼灸學。香港 商務 書齋香
港分店。pp.15 16.1975.
10. 成樂箕：必須鍼灸全書。서울 醫道韓國社。
pp.39.40.1975.
11. 成貞永：鍼灸考試問答集。서울 高文社。pp.
104.1947.
12. 宋榮敏：圖解最新鍼灸處方集。서울 杏林出版
社。pp.21.22.1977.
13. 承擔會：中醫鍼灸學。台北。文光圖書公社。
pp.18.19.1960.
14. 尹昌河：萬能鍼灸診療要訣。서울 新教出版
社。p.41.1980.
15. 李觀浩：東洋醫學研究。서울。서울音樂社。
p.39.1979.
16. 李文宰：鍼灸學 서울 慶苑文化社。p.20.
1975.
17. 李秀鎬外：精解鍼灸學。서울 杏林出版社。
p.794.1974.
18. 李容圭：韓國鍼灸臨床錄。서울 杏林出版社。
p.34.1979.
19. 李泰浩：鍼灸大成全。서울 서울出版社。
p.125.1977.
20. 金賢濟外：最新鍼灸學。서울 成輔社。pp.366
367.1979.
21. 林鍾國：鍼灸治療學。서울 醫道韓國社。pp.
39.40.1973.
22. 莊育民：鍼灸大成講義。台北 長文彩色製版公
司。pp.415.462.1971.
23. 張基洙：診斷과 鍼灸治療。서울 癸丑文化社
pp.95.96.1976.
24. 丁民聲：鍼灸醫學原理。서울 日光社。pp.33
34.1982.
25. 丁海哲：漢藥산책 鍼灸甲乙 서울 文英出版
社。pp.267-271.1980.
26. 長賓善夫外：鍼灸治療의 新研究。大 東洋
錄台通信教育出版社。pp.23,24.1968.
27. 丁光聲：鍼灸醫學原理。서울：大光文化社。
p.28.1981.
28. 崔容泰：鍼灸學。서울 極東文化社。pp.17-
19.1969.
29. 蔡陸仙：中國醫藥匯海 台北。新文豐出版公
司。p.9.1978.
30. 洪元植：意帝內經靈樞解釋。서울 高文社。
pp.22.43.95.1973.
31. 洪元植：意帝內經素問解釋。서울 高文社。
p.77.1972.
32. 權英俊：鍼灸研究의 學理的 潮流 高鳳。
13:126.1966.
33. 李：編註醫學入門(上) 三和精版社。서울
p.481.1985.
34. 楊繼洲：鍼灸大成 서울 杏林書院。1892.
35. 許 浚：東醫寶鑑。北京 北京印刷一歷。
p.777.1982.
36. 任應秋：意帝內經章句索引。北京 北京衛生
出版社。p.363.1986.
37. 田光玉：靈素鍼經。手抄本。1956.
- 38.：鍼灸歌賦 香港。醫藥衛生出版社。
p.70.1973.